

“맛있게 드세요”라는 아름다운 주문

(畵文)

터치 코리아



시미즈 히로유키
아메노히카리피점 운영

“맛있게 드세요?”라고는 절대로 묻지 않는다. 나는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사람 취향은 제각각이다. 손님이 애매한 얼굴로 “아, 네...” 하거나, 질문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무표정한 얼굴로 “네!”라고 외치거나 그런 서로가 슬픈 장면을 마주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손님 중에는 묻지 않았는데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라고 그냥 인사말 같지 않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말 그대로 맛있게 드셨다면

“맛있게 드셨어요?”란 질문에 “아니요” 못 하는데 왜 물을까
이제는 의미를 알게 됐다
강요 아니라 기도 같은 것

음식점에서는 더 기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도 관련한 일이 생긴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면서 케이크와 음료료를 많이, 때로는 절반 이상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도대체 본심은 무엇일까? 덧붙여서 일본에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하찮은 것입니다만(받아주세요)” 하며 속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 풍습이 있는데(정말 하찮은 것이라면 주지 말아야 한다) 일본인인 나도 이것은 참 이상하다고 느낀다.

또 생각해보니 음식점에 가서 듣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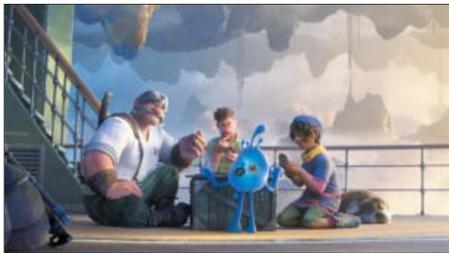
“맛있게 드세요”라는 말도 좀 불가사 의하다. 요리가 나온 그 시점에는 이미 먹을 것은 완성된 상태고, 내가 맛있게 먹느냐 맛있게 먹느냐는 결국 요리사가 맛있게 음식을 만들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오히려 “맛있게 만들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준다면 시원하겠지.) 아니면 공국수에 손님이 직접 소금을 적당량 뿌리는 것처럼 각자 노력해서 최대한 맛있게 먹으라는 뜻일까? (솔직히 공국수는 처음부터 미리 요리사가 생각하는 적당량 소금이 들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일까?)

그러나 이제 내가 음식점을 하는 처지가 되고, 훗내 내서 “맛있게 드세요” 하게 되면서 비로소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손님에게 커피를 내면서 말하는 “맛있게 드세요”는 내가 열심히 내린 커피에 살짝 곁들이는 기도나 소원 같은 것이다. 손님에게 꼭 맛있게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맛있게 먹어야 한다고 긴장하면서 먹을 필요는 전혀 없고, 각각의 방법으로 마음 편하게 먹으면 된다.

커피와 요리가 더 맛있어지는 자그마한 주문(畵文) “맛있게 드세요”는 입에 올리는 것도 귀에 들리는 것도 즐겁다. 그 아름다운 말에는 크리스마스 캐럴 같은 기분 좋고 따뜻한 멜로디가 붙어 있는 것 같다.

황석희의 영화 같은 하루 [101] 전 아버지가 아니에요!

I'm not you!



Dad. It's yours.”

저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대럴드 트레퍼트는 이렇게 말했다. “자녀에게 무엇이 결여됐는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자녀를 강하게만 키우고자 하는 부모에게 자식의 장점보다 단점이 눈에 잘 띄는 법이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트레인지 월드(Strange World·2022·사진)’의 주인공인 서처 클레이드의 아버지 예거 클레이드도 자신과 달리 나약한 아들이 늘 탄탄하지 않다.

예거 클레이드는 아발로니아라는 작은 나라의 전설적 탐험가다. 아발로니아는 사면이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 누구도 아발로니아 바깥세상을 본 적이 없다. 예거는 그 산맥을 아들과 함께 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이자 최종 목표다. 드디어 결전의 날, 산맥 정복에 나선 클레이드 탐험대는 탐험 중 난관에 부딪히고 마을로 돌아가는 서처와 대원들의 말에도 예거는 고집을 부린다. “저 산맥을 정복하는 게 우리가 남길 유산이야(Conquering those mountains is our legacy).” 늘 고압적인 아버지가 못마땅하던 서처는 폭발하고 만다. “아버지의 유산이겠조(No,

예거는 자기 뜻을 물려주는 아들이 야속하다. “그만해! 내 네 아들이다(Enough! You're my son).” 서처는 평생 마음에 담아 온 말을 뱉는다. “하지만 전 아버지가 아니라고요(But I'm not you!)” 영웅 예거 클레이드의 아들로 평생 부담감 속에 살아 온 서처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을 숨기지 못한다. 예거는 고집스레 탐험대와 작별하고 혼자 남아 산맥 정복에 나서다 실종되고 만다.

이렇게 헤어진 부자의 극적 상봉은 그때부터 25년 후, 이제 아버지가 된 서처와 할아버지가 된 예거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영화변역가

社 說

용두사미 반도체 감세, 기재부도 반대했다니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의 ‘20% 공제’ 원안에서 대폭 후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의지에 부합해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유까지 구성해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대기업 20%, 중견·중소기업은 25~30%씩 세액 공제 해주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초부자 감세”라는 야당 반대로 4개월간 표류한 끝에 대기업만 공제 폭을 2%포인트 확대하고 중견·중소기업은 현행대로 8~16%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한 윤 정부의 전략이 용두사미가 돼버렸다.

미국은 반도체 공장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반도체 투자의 25%를 세금에서 빼주는 반도체 지원법을 지난 8월 통과시켰다. ‘반도체 굴기’에 총력전인 중국의 공제율은 무려 100%다. 그런데 반도체 한 품목이 국가 경제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은 8만 공제해줬다고 한다. 게다가 행정·규제완화 혜택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에선 업계의 핵심 요청 사항인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증원’이 빠져 버렸다. 세제 혜택을 덜 주고, 인력 충원은 발목 잡으면서 다른 나라들과 싸워 이기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아 지원책을 주도한 무소속 양향자의

원이 “차라리 (법안을) 부결시켜달라”고 호소했겠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세액 공제율이 8%에 그친 데엔 기획재정부의 세수 감소 우려 탓이 컸다는 점이다.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여당안대로 20% 세액 공제를 해주면 법안세 세수가 2조7000억원 줄어든다며 사실상 반대했다고 한다. 야당 반대도 있었지만 기재부마저 소극적 입장을 취하는 바람에 인상 폭이 2%포인트에 그쳐, 올리는 시늉만 하는 것으로 타결됐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산업의 핵심”이라면서 총력 지원 입장을 밝혔는데 기재부는 뒤에서 발목을 잡은 꼴이다. 당정이 따로 놀고, 대통령실과 기재부의 입장이 어긋나는 일이 벌어졌다.

반도체 세금을 깎아주면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기재부 논리는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기조와도 모순된다. 윤 정부는 기업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 경제가 활성화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세수도 증가하는 선순환이 생긴다고 말해왔다. 법인세율 3%포인트 인하는 기재부가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기도 하다. 그렇게 법인세를 인하해야 투자가 살아난다면 기재부가 반도체 투자 지원에는 세수 부족을 우려하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각 부처 정책을 총괄 조율하는 대통령의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잇따르는 전세 사기, 세입자의 ‘알 권리’ 강화부터 서둘러야

인천시 등에서 주택 2700채를 차명으로 보유한 건축업자와 일당이 26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건축업자를 포함해 공범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업자’, 세입자를 끌어들이던 공인중개사 등 공범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3일 영장은 각각했지만 경찰은 보강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건축업자가 보유한 주택은 빌라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진 이른바 ‘빌라왕’ 보다 2배 이상 많다.

10여 년 전부터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한 이 건축업자는 지인들에게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 보증금과 주택 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고 한다. 이들은 자금 사정 악화로 빌라 등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나 중개 보조인들도 건축업자의 자

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주인이 돈이 많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주거 불안에 물린 경제적 약자를 먹잇감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이다.

전세 사기는 보통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아 돌려막기식으로 빌라를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내용을 모르는 임차인들은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피해를 알게 돼 돈을 돌려받기도 어렵다. 심각한 것은 피해자 중에 사회 초년생 등 20~30대와 취약 계층이 많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전세금은 전세 산이나 다름없어 아마저 날리던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피해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세입자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도 국회는 법안 심사에 손을 놓고 있다. 주거 약자를 베풀 것으로 몰아가는 악질 전세 사기 차단에 국회도 나서야 한다.

재판 거래 수사 방지, 그사이 변호사 등록한 권순일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가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וע했다. 지난 9월 변협은 권 전 대법관에게 두 차례 자진 철퇴를 요구했었다. 그래도 철퇴하지 않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연 끝에 변호사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의혹이 있으나 법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청을 수וע했다는 것이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김만배씨가 소유한 부동산 투자 회사다. 분양 특혜를 통해 5000여 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그 상당액이 인허가를 위한 불법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씨와의 특별한 인연이 아니라면 대법관 출신이 들어갈 만한 회사가 아니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직후 김만배씨에 의해 화천대유에 영입돼 대장동 의혹이 알려질 때까지 11개월 동안 월 1350만원의 고문료로 일했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협 의견서에서 화천대유 재직 당시 언론사 인수 건에 대해 경영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 자신은 위협적인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이 없고 법률 자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

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 회사에 들어가 대장동 관련 일을 하지 않으면서 적지 않은 고문료를 받았다

는 주장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김만배씨는 권 대법관 재임 시절 1년여 동안 8차례 대법원을 찾아가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 이 시기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판결을 무죄로 뒤집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판결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권 전 대법관은 뇌물 수수, 변호사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다. 이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변호사 등록을 스스로 미루는 것이 법조인의 자세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검찰과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에 있다.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이 지사 무죄 청탁을 했다는 남욱씨의 증언이 작년 10월 나왔지만 문재인 정권 당시 검경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수사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장벽 안에서 사실상 방치된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은 한국의 사법 정의를 베푼다는 일이다.

고민하라! 그리고 결단하라!

23년 전당대회, 24년 총선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내외의 적은 누구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결단해야 한다. 2023년 3월 전당대회 ~ 2024년 총선까지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를 위해 먼저 그의 적이 누구인지를 새삼 다시 봐야 한다.

외부의 적	내부의 적
김정은, 김여정, 이재명, 문재인, 김명수 법조 패, 형명 경찰 패, 양아치 좌파파 그 팬덤, 조폭 마피아, 직업적 촛불 흥위병, 기파뉴스 생산·유통·판매업자들.	유승민, 이준석 흐름과 그 뒷배들, 내부 분당질, 기회주의 양시양비(兩是兩非)론, 역선택, 권익위, 방통위.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8대 결단

‘윤석열 시대’는 내외의 적에 의해 파괴된 자유대한민국을 선진 정상국가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윤석열 리더십’과 깨어있는 자유 국민은 먼저,

1. ‘국민의 짐’을 ‘전투적 자유 레지스탕스’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2. ‘국민의 짐’에 실망한 자유 국민을 국민의 힘 책임당원으로 대거 맞아들여야 한다.
3. 새 피 당원들이 당내 강남좌파·중간파 기회주의를 배척하고, 선명 자유 전사(戰士)를 당 지도부로 선출해야 한다.
4. 새 당 지도부가 ‘2024 총선’ 후보 공천권을 행사해야 한다.
5. 전투 현장에서 피 토하며 싸우는 전사들을 다수 공천해야 한다.
6. ‘2024 총선’에서, 자유 레지스탕스를 주축으로 한 자유진영이 원내 다수세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7. ‘2024 총선’에서 다수의의를 확보하면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 회복·국가정상화조치’를 과감하게 취해야 한다.
8. 국가 정상화는 ‘주사파와는 협치 불가능하다’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하겠다’고 한 ‘윤석열 독트린’을 포함해야 한다.

당 대표로 뽑아야 할 사람

‘자기 정치’ 하는 정치 업자들, 반(反)헌법적 극좌를 ‘진보’라고 불러주는 무지, 위선, 허위의 인간상은 아니어야 한다.

새 당 대표로 뽑아야 할 사람

울곧고 정의감 센 원칙의 인간상, 내외의 적에 대해 최첨단 스텔스 전폭기 F-22 같은 공격력을 발휘할 사람이어야 한다.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뉴데일리

